

2030과 4060이 함께 소통하는 중장년내일센터

-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세대 공감형 홍보 본격 추진 -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7월 23일(목) 오후 2시, 충청로 소재 재단 대강당에서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Zoom)을 병행 운영하여, 지역과 관계없이 서포터즈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 및 사무총장 인사 말씀, 위촉장 전달식, 단체 기념 촬영에 이어, 2부 중장년내일센터 사업 소개 및 서포터즈 활동 안내, SNS 교육 특강 순으로 진행되며 2030세대와 4060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 5기는 기존 센터 이용 고객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참여 대상을 기존 40~60대에서 20~30대까지 넓히고, 모집 규모 역시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다양한 세대의 시각을 반영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 역량을 더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장년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함께 담아 중장년내일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포터즈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활동, 서비스 체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가 다양한 세대의 시각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경력개발지원팀	책임자	팀장	김경희 (02-6021-1150)
		담당자	컨설턴트	하애솔 (02-6021-1145)

